

세계관 교재 및 교육의 의미와 방향



전광식 고신대 교수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이 땅에 던져지고 뿌리를 내린지 어언 4반세기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지나왔다. 작금에 이르러 이 운동의 핵심에서 있던 두 단체가 통합을 한 것은 긍정적 의미에서건 부정적 의미에서건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사적 계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연구와 논의, 교육과 운동의 역량을 결집하여 이 운동의 추진에 새로운 활력과 탄력을 얻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관운동과 교육이 어떤 의의가 있으며 또 미래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약술하려고 한다.

1. 세계관운동과 교육에 대한 인간적 긍정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반(反)지성적, 반(反)반성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목회자들 사이에 일고 있는 부흥실용주의적 경향은 이러한 흐름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마치 음악 한곡 듣는 것으로, 차 한잔 마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음미하고 향유하려고 할 뿐, 성경의 진리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반성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기독교는 지성의 세계에서는 많이 위

축되어 있고, 지성인들에게 대한 복음의 변증도 매우 미약해진 실정이다. 근원적으로 생각하면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성경, 진리의 영을 간과하거나 약화시킨 영적 우행(愚行)이기도 하다.

이렇게 진리와 지성을 소홀히 하다 보니 신앙의 관점형성 조차 이뤄지지 않아 그들의 신앙에는 기복성, 맹목성, 이중성이라는 불순물까지 끼이게 되었다. 특히 신앙을 순전히 고백적인 차원에서 머물게 할 뿐 삶의 차원에서 토대로 삼지 못했고, 신앙생활을 단순히 교회적 영역에서 머물게 할 뿐 세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펼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현실에 비춰 볼 때 한국에서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매우 중요하고 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신앙은 고백만의 문제가 아니요 삶의 토대가 되어야 하며, 경건은 주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동안의 삶에도 적용됨을 가르쳤던 것이다. 나아가 신앙과 인격 및 삶의 일치, 신앙과 학문 및 교육의 일치를 강조했고, 이것을 위해 성경적으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의 확립, 즉 기독교 세계관의 수립을 강조했던 것이다.



2. 세계관운동과 교육에 대한 인간적 부정

한국내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이렇게 그 존재의의도 있고 또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났다. 먼저 세계관운동이라는 것이 다소 지성적 성격을 지니고 또 지성인들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다보니 너무 사변화된 일부의 경향이 있었다. 말하자면 세계관을 인문학적 담론으로만 끝고 지나치게 사변주의화시켜 그 본래의 생명력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논의를 했지만 실은 그 개념정립부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지적할 수 있다. '세계관'이란 사실 물리적 실재로서의 세계를 보는 시각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서의 세계를 보는 관점이므로 실은 '세상관'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른다. 그리고 세계관운동에서 지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원론'이라는 것도 'dualism'를 그렇게 번역해서 그렇지 실은 신앙과 삶의 불일치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이중성' 내지는 '이중주의'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화란이나 미국 등 외국이론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그것을 부정확하게 번역하다보니 빚어진 일들이기도 한데, 실제로 한국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세계관

적 문제점을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미약했다고 보여진다. 나아가 세계관운동이 개인변화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 운동의 대사회적, 공동체적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훈련보다는 성장위주의 목회방식을 추구하는 대다수목회자들의 무관심과 몰이해로 인한 교회적 수용이 약했음도 지적할 수 있다. 나아가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초, 중, 고 학생들을 위한 교재개발의 부족 및 일반 평신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난해한 개념 사용 등으로 세계관교육과 훈련의 저변화가 이뤄지지 못한 점도 있다.

3. 세계관운동과 교육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재긍정

하지만 세계관 운동, 특히 교재의 개발과 교육을 통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훈련과 양육이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제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계관운동은 분명한 지성적 요소를 지니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고, 본질상 영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세계관 운동은 학문운동이나 관점변화운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운동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세계관 운동은 학문운동이나 관점변화운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운동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생명력있는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운동은 난잡한 사변 속에서 죽은 논리로 머물지 않고,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생명력있는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교회공동체는 물론 대안학교 운동이나 성시화 운동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운동과도 접목되어 실재에서 그 열매를 맺어 가야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통합의 첫 작업으로 기독교 세계관 교재의 집필에 착수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작업은 추후의 모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연구와

교육, 훈련과 운동에 대한 성경적인 이론적 초석이 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

Soli Deo Gloria !

